



▲ 울산광역시장 박맹우

"생태산업도시로 거듭나는 울산광역시"

90년대만 해도 울산하면 떠오르는 것이 "공해도시"였다. 그러나 지금은 행정기관과 시민, 기업주의 환경의식이 가장 높은 곳, 자율적인 환경관리의 노력으로 생태산업도시로 향하는 성숙한 시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해부터 크게 달라진 울산시에서 연합회 "창립 18주년 기념행사와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에 이상호 회장이 행사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박맹우 시장을 만나 울산시의 환경정책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비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친 환경도시로 탈바꿈한 울산광역시에서 저희 단체가 "창립 18주년 기념행사와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창립 18주년 기념행사를 저희 울산에서 개최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호 회장님을 비롯한 전국의 환경기술인 여러분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해 울산광역시의 변화가 두드러졌는데 성과가 많으시죠?

지난 2003년은 울산광역시로서는 가슴 벅찬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시민의 화합된 힘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힘으로 커다란 일들을 해냈으며, 앞으로 모든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을 유치했습니다. 또 별다른 잡음이나 물의를 빚지 않고 종합장사(葬事)시설의 설립지도 확정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집단행동 한번 없이 마무리 지은 것입니다. 아마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사례일 것입니다.

또한, 국제포경위원회(IWC)에 의해 수산분야 올림픽으로 꼽히는 포경위원회 총회 개최지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세계 50개국과 90여 NGO, 1만여 명의 수산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매머드 이벤트입니다. 이 행사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그럼 환경문제로 화제를 돌리겠습니다. 울산이 공해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시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잘 알다시피 울산은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국가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우리나라 최대의 산업도시입니다.

현재 석유정제 산업의 57%, 조선산업의 40%, 자동차산업의 32%의 생산력을 점유하고 있으며, 전국의 12%인 76조4,600억원대의 공업생산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위도시로는 최대의 규모이지요. '태화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발생된 과거의 환경적인 문제가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은 절대로 공해도시가 아닙니다. 환경친화도시입니다.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언제부터가 '영남 알프스'로 알려지게 된 가지산과 신불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앞으로는 동해가 펼쳐집니다. 도심을 가로질러 태화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으며, 전국에서 제일의 높은 녹지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석해안'이라 일컬어지는 강동·주전해변 등 남북 108km에 이르는 파란 해안선이 이어지고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뜨는 간절곶, 신라 문무왕이 죽어 호국용이 되어 바다에 잠겼다는 대왕암,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인정받는 국보 제285호인 반구대 암각화 등 명실공히 산과 강, 바다가 어우러진 환경친화적인 고장입니다.

잡은 환경사고들이 울산지 전체의 이미지로 대변되었는데 알고보면 아주 친환경적인 문화가 많은 곳이지요.

그 동안 친환경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추진한 환경시책이 많으시죠?

전 환경분야에 대한 오염실태 조사를 통한 환경보전 Master plan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석유화학계열의 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적인 특성상 악취 문제가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취특별대책반을 편성하여 매일 주야간 구분 없이 순찰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며, 기업체 및 시민들의 악취모니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전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취약한 시설을 개선토록 유도하였으며, 악취업무편람을 제작하여 배부함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작년의 경우에는 악취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청정연료 사용 권장, 천연가스버스 보급, 자율환경행정협약 체결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아황산가스의 경우 '81년 한때 0.057ppm까지 올라갔던 오염도가 '95년 0.028ppm, 2003년에는 0.010ppm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산업도시의 특성상 아황산가스의 경우 타 도시보다 다소 높으나, 질소산화물, 먼지 등은 타 시도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존형성의 전구물질로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진 VOCs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발생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적정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하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되는 사업장에는 채찍을 가하여 시설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화력발전소 등 연료 다량 사용업소에 대한 대기오염 부하량을 조정토록 하였으며,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방지시설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지난 '95년부터 2002년까지 지역기업체에서 환경개선에 투자한 금액이 무려 2조3천억원이나 됩니다.

수질분야를 말씀드리면, 울산시의 대표적인 하천인 태화강과 회야강의 주요 오염원은 하천 상류지역이 주거 밀집지역으로 개발되면서 발생하는 가정오수가 오

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오염원 저감, 하수처리장 신·증설 등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화강 등 하천 및 연안의 수질개선의 위한 태화강 유입오수차단사업, 가정 오수관 연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 하천을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분야에서도 많은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이름답고 훌륭한 자연자산인 영남알프스, 청정해역, 깊고 청량한 계곡 등을 보전하고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야생동식물보호를 위한 생물다양성협약 체결, 습지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등 자연환경보전이 21세기 지구촌의 중요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시 전역에 대한 자연환경조사, 정족산무제치늪 생태계보전 지역지정, 조수보호구 지정관리,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수립, 태화강 생태공원조성 사업추진, 밀렵밀거래 예방, 환경성 검토강화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Eco-polis"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1C 지구촌의 최대화두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대 Vision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역환경관리의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제2차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 차질없는 추진과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가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악취관리를 위하여 악취방지법(2004년 하반기 시행예정)에 의한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예정이며, VOCs 상시측정망도 설치



할 계획입니다.

도심의 소하천을 생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천으로 들어오는 오염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시민정서함양을 위하여 자연생태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화강의 명물인 십리대숲을 보전·복원하고 도심내 생태관찰로 등 자연환경 이용시설로 조성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의 자율적 환경개선 노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체결한 자율환경관리협약이 96.1%의 높은 성과를 보임에 따라 기존협약을 보완·발전시켜 확대 체결하여 공단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늘리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자율환경협약 이행성과 및 환경투자 실적, 지역사회 환경기여도 등을 주기적으로 종합 평가하여 기업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 친환경적인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Eco-polis 울산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욕구 충족 및 지속적인 도시발전 기반을 확립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공존하는 친환경생태 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국제적인 환경이벤트 행사를 유치하여 산업도시에서 친환경도시로의 이미지 전환을 위한 대외 홍보 기능도 강화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지역 환경산업과 기술을 육성하여 잠재적인 지역환경산업기술 수요를 적극 창출하고 공급인프라 조성으로 국내 ET 산업메카로의 도약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깨끗한 환경도시로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시장님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울산지역은 타지자체와는 달리 환경기술인 및 기업과의 업무유대가 돈독하다고 들었습니다. 비결이 있으시다면?

환경기술인과 환경담당공무원들 모두 한 솔밥을 먹

는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단속위주의 환경행정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생각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친화적인 경영을 하도록 행정이 지원하고 독려하는 것이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데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율환경행정협약을 체결하여 문제시설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기술인의 위상이 높아지면 기업체에서의 입지도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오너에게 노후시설 개선,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한 투자를 건의할 때에도 쉽게 받아들여 질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역환경을 위한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기술인이 주관하는 행사는 행정적으로 지원도 아끼지 않고 가급적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의 지정을 계기로 불과 40년 만에 인구 110만의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기업체 입주,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 각종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1990년대 초까지 "공해 1번지, 공해백화점" 등의 부끄러운 오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환경오염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타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환경개선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환경개선에 대한 시민욕구에 부응하여 시민, 기업, 행정이 합심된 노력의 결과라 판단됩니다. 특히 민선자치시대의 개막과 우리시가 광역시로의 승격, 월드컵 경기를 유치하는 시대적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접목한 성과라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이 살아 숨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여 명실상부한 친환경적인 산업수도로서 자리 매김하고 아울러 경제와 환경이 공존하면서 지속발전 가능한 국제적인 산업도시로서 성장하여 환경·교통·문화·관광을 아우르는 21세기형 도시, 동북아의 빅5 도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